



[지스타 2019] 게임마니아 대기행렬 부스 역대최고 3208개 08



Economy

코스피	↑	2139.23 (+16.78)	코스닥	↑	663.31 (+1.46)
금리 (연대 3년)	→	1.51 (0.00)	환율 (원/달러)	↑	1169.70 (+1.90) (14일)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 앞에서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이 메트로신문 수능 특별판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올 수능, 전년보다 체감 난이도 낮았다

국어 난이도 전년보다 쉬워 수학은 '9월 모평'과 비슷 응시자 줄어 정시 변수 예상

올해 수능 주요과목인 국어는 지난해 보다 쉽게, 수학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1교시 기준 결시율이 10.14%로 높고 재학생 감소 영향으로 올해 수능 응시자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로 떨어짐에 따라 정시 지원전략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난이도는 지난해 '초고난도 문항'으로 난이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견줘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고난도 문항은 22번과 40번으로 이 문항들을 얼마나 잘 풀어냈느냐에 따라 최상위권 성적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 교사

“EBS 교재에 연계된 작품이지만, 고전시가이고 EBS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 지문에 일부 포함돼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입시업체도 대체로 교사들과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수능은 전년보다 올해 6·9월 모의평가보다 상당히 쉽게 출제됐다”며 “선택지와 지문이 다소 짧게 구성돼 체감 난이도가 낮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능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20번, 21번, 29번, 30번이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수능 2교시 이후 대교협 현장 교사들은 대체로 작년 수능과 9월 모평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현장교사들은 “수학 나형 중 매년 가장 어려운 30번 문항이 작년보다 쉬웠다”고 평가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내용 전체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은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내용 전체에서 각각 출제됐다.

◆가채점 결과 평소보다 높다면 정시 지원 집중

수능이 끝남에 따라 수험생들은 수시모집에 지원한 전형의 논술고사, 면접, 적성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치르고 본격적인 정시 지원 계획을 짜야 한다.

우선 수능을 마친 뒤에는 원점수와 예상 등급 기준으로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자신의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수능 이후 실시되는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 정시 지원 대학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3면에 계속〉 /한용수·손진영 기자 hys@

또 ‘포퓰리즘’ 도진 與 유통대기업 거센 압박

與 유통산업발전법 추진에 학계·전문가, 총선정책 지적

“온라인 유통업계 급성장이 대기업·소상공인 불황 원인”

“문제를 잘못 짚고 있다”는 학계·전문가 지적에도 여당의 유통업계 압박 수위가 세지고 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 기업 옥죄기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이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과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해결책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올해 중순 유통산업발전법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입법안 5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간담회에서 “0.1%의 공룡 대기업이 독식하는 유통산업에서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유통산업 독과점이 매우 심각한 복합쇼핑몰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지만, 주요 도심지에 입점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규제 강화) 법안을 냈지만, 자유한국당이 가로막아서 비켜서질 않는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쟁력이 0.1%의 대기업만 살아남는 것이지 이 자리를 빌어 반문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1997년 제정됐다. 중소기업 보호보다는 소비 다양화와 욕구만족, 유통비용 절감 등이 목적이었다. 규제를 풀어 대규모 점포 개설을 촉진하는 성격을 띤다. 하지만 민주당이 촉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와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입지·입점·영업제한을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업종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대형점포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와 전문가의 시각은 다르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이 자생적으로 혁신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소상공인 브랜드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여야3당 및 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워 유통망을 제공해야 소비자에게 다가갈 길이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이진해 발표한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조사’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 1295개 매장 중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총 833곳으로 전체 입점 업체 매장의 68%에 해당했다.

학계는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이유가 온라인 유통업체(이커머스)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애초에 대규모 점포와 소규모 자영업자 대립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형마트 3사의 총매출은 전년 대비 1.3%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2012년부터 7년째 감소세다. 특히 국내 1위 대형마트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영업이익은 26.4%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 이베이코리아는 2013년 대비 2016년 매출이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0% 증가했다. 소셜커머스 쿠팡의 경우 매출이 같은 기간 478억원에서 1조9159억원으로 40배 늘었다. 티몬은 매출이 77% 뛰었고, 위메프 역시 4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학계·전문가는 대형점포에 대한 정치권 외면은 유통업 전반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지어 한국경제기자총협회는 지난 1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까지 국회에 요구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은행,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제한

금융당국, DLF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불완전 판매가 적발될 경우 수입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을 물리고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에게 제재가 내려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발생한 DLF사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결과”라며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곳을 개선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앞으로 금융당국은 공모규제 회피를

방지하고 금융상품과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 감독도 강화한다.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기능은 유지하되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스템 통제는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공모상품으로 판단한다. 은행이 공모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형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기준도 마련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 이상인 상품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 문인력 요건을 갖춘 곳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인력을 제한한다. 고난도 금

융투자상품은 녹취 의무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설명·공시가 의무화된다.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된다. 앞으로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를 판매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는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만 가능하다.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는 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제도도 도입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손진영 기자